

核도미노 우려... 한반도 6·25 이후 최대위기

■ 북 핵실험 긴박했던 4시간

10:15 중, 한·미·일에 통보

중국, 북한으로부터 핵실험 20분전 통보 받고 한·미·일 본에 즉각 통보. 로이터 통신, 같은 시간대 이 사실을 첫 타진. 정부는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

10:35=대전 대덕연구단지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 지진과 포착.

11:00=국가정보원, 북한이 핵실험을 했으며 장소는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360m 높이 산 지하의 수평 경도라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

11:20 합참, 군대비태세 강화

합참, 전군에 군사대비태세 강화를 지시. '위기조치반' 가동, 북한군의 동향 점검.

11:30=청와대, 대통령 주재 안보장관 회의 소집. 정부, 미국·일본·중국·러시아 정부와 관련 정보를 주고받으며 핵실험의 진위를 파악하는 한편 대응책 마련에 착수.

11:34=미 AP통신이 '북한 핵실험 강행' 보도. 11:42=대교통신 '북한 핵실험 가능성' 보도.

11:48 北통신 "핵실험 성공"

북한 조선중앙통신 '지하 핵실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12:00=북한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정오뉴스 통해 핵실험 성공 보도. 같은 시각 청와대 안보장관회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전환. 주무부서인 외교·국방부는 비상상황에 돌입.

12:30=외교통상부, 북한의 핵실험 사실을 재외공관에 긴급 타전.

12:40 미국방부 핵실험 인정

미국방부 관리, "핵실험 발표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언급. 미 지질조사국, 웹사이트를 통해 평양으로부터 북동쪽으로 385km 떨어진 북위 41.311, 동경 129.114도 지점에서 리터당 규모 4.2의 진동을 감지했다고 공개.

12:47=반기문 외교장관, 15분 간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및 아소 다로 일본 외상 등과 3자 전화통화를 하고 공동 대응키로 합의.

14:00 통일부 北총합물자 유보

통일부, 이종석 장관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10일 동해항에서 시멘트 4천t을 선적, 북한으로 향할 예정이던 선박의 출항 일정을 일단 유보.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파장과 북한의 손익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끝내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한반도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외형적으로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다.

◇ 핵 도미노 우려=북한의 핵실험, 나아가 핵무기 보유는 동북아 지역에 '핵 도미노 현상'이 닥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고조된다. 남북합을 가운데 놓고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국가간 정치적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줄타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지역이 '핵 지역(Nuclear Zone)'으로 변해버릴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특히 일본은 공공연하게 충분한 핵무기 개발 능력을 갖출 경우 여러 차례 시사한 바 있어 일본이 '핵 보유국'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대만도 핵 보유국으로 발돋움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시나리오 하에서는 비록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만 유일한 '핵 미보유국'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 북한의 손익은=북한이 핵실험을 전격 단행한 데는 나름의 손익계산이 깔려있다. 무엇보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9일 핵실험을 통해 세계에 핵보유국임을 과시했다. 이로써 핵 클럽의 일원으로 미국 등 핵보유국들과 '동등한 반열'에 오

日·대만 개발 촉발... 한국만 비보유국 될 듯 北 경제봉쇄 등 각오 '핵보유'로 체제유지

르려는 김정일 정권의 오랜 숙원은 성취된 셈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 핵실험과 관련해 나름대로 고려한 것은 미국의 군사적 공격과 중국관계로 관측된다. 우선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에 발목이 잡혀있고 이란 핵문제 등 여러 가지 국제문제로 북핵문제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을 과시한 이상 합부로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강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을 수 있다. 중국도 유엔의 대북결의안에 전격 찬성하는 등 북한에 불리한 행보를 보이기는 했지만 중국의 한반도 최우선 정책은 김정일 체제의 안정에 있다는 것이 북

한의 판단으로 보인다.

사실상 핵실험으로 가장 실이 큰 부분은 경제문제. 더욱 강화될 경제봉쇄로 북한 주민들의 궁핍은 그 정도를 더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동안 내성을 키워왔다는 분석도 있다. 또 중국을 비롯해 반미전선을 펼치고 있는 이란·쿠바·베네수엘라 등 비동맹국가와 경제협력 및 교류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는 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오려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을 선언함으로써 주민들에게는 군사강국, 강성대국이라는 자부심을 더욱 높여줄 수 있다고 인식했을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남북 군사 비교 자체 무의미해져

北 핵무기 양산 발판...核戰 전술교리 이미 갖춰

북한의 전격적인 핵실험 감행은 군사적으로 핵무기를 양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어서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이미 개발한 핵무기의 성능을 확인하고 국제적으로 이를 공인받으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성능을 확인했다면 다음 순서는 미국의 대북정책 추이를 봐가면서 핵무기를 추가로 제조하는 단계에 돌입할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국방부는 현재 북한이 1992년 5월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이전에 추출한 10~14kg의 무기급 플루토늄으로 1~2개의 핵무기를 제조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 핵무기

보유 선언에 이어 핵실험을 실시한 이상 '자위적 수단'으로 핵무기를 추가 제조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남북한 전력 불균형은 수치적인 계산이 무의미해졌다고 밝히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중거리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이번엔 핵실험까지 단행함으로써 전략무기 측면에서는 남북을 단연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앞서 1990년대 초반부터 핵전쟁에 대비한 전술교리를 전군에 주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특별기고

차 두 현 <국방연구원 국방안안 팀장>



'조선중앙통신'이 9일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은 핵 실험의 진위, 성공 여부, 북한의 관련 기술 수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단계이지만, 일단 핵 실험 성공 발표만으로도 이것이 한국 사회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와 국제 정세에 미칠 파장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그 정도와 수준에 관계없이 북한이 핵실험에 실제로 성공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우리는 이제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로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1990년대 북한의 핵 개발 의혹 이후 우리가 계속 우려해 왔던 '핵 인질'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고 또 그래야 하지만, 북한

의 '벼랑 끝 전술'과 지금의 전술은 외형은 유사할지 모르지만 그 본질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과거의 '벼랑 끝 전술'을 통해 북한은 실제 벼랑 아래로 떨어질 의도가 전혀 없으면서도 그 가능성을 암시함으로써 외교적 협상력을 극대화하려 노력해 왔다. 반면, 현재의 전술은 북한 자신도 실제 추락의 위험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구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자신들의 행위가 심각한 국제적 고립과 중국 및 러시아로부터의 경원을 불러올 수 있음을 예상하면서도 북한이 모든 행위자들이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고 또 그래야 하지만, 북한

北 극단적 선택 '체제 위기' 반증일 수도 '핵인질'로 잡힌 한국 최악의 딜레마

의 핵 능력이 신뢰성 있게 해제되는 시점까지의 심리적·실질적 불안요인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은 결코 만만하다고 할 수 없다.

북한의 핵실험은 기존의 지역 역학구도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선, 일본이 북한의 핵 무장을 거론하며 자신들의 대응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다른 역내 국가들 역시 발 빠른 행보를 보일 경우, 동북아 전역에서 핵을 비롯한 전반적 군비경쟁이 촉발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이미 미사일 발사시험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 괴로움을 암시한 바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관계 역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북한 문제에 관한 한 기존의 미·일 대 중국과 경쟁과 견제, 그리고 러시아의 전략적 관여와 관망이라는 역학구도 자체가 뒤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주변 4강의 보다 복잡한 이합집산을 예고하는 것이며 자칫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제약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핵실험이라는 카드를 강행한 북한의 내부사정에도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분명, 북한이 즐겨 구사해왔던 기존

로써 발생하는 위험보다 크지 않다는 판단을 전제로 할 때만이 가능하다.

이는 결국 북한의 현행 고위 정책결정체제 더 나아가 권력구도 자체에 심각한 이상 징후가 발생했으면, 그만큼 현재의 북한 정권과 체제의 내구력이 손상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북한의 핵실험은 단순한 안보위험의 차원을 넘어 보다 복잡하면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을 우리에게 부과해 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이러한 상황이 한반도의 위기로까지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국내의 통합된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제는 소모적 논쟁보다는 공통의 대안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며,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해서도 정색을 하였을 때의 우리 모습이 얼마나 단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 핵실험을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대한 도전을 넘어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개개의 상황에 일희일비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우리사회가 지닌 생명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의연하고도 냉철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Large advertisement for 'Changyoung' (창영) featuring various services, contact information, and a detailed table of offerings.